이종선 목포해경 부부, 냉골에 쓰러진 모녀 구조 '훈훈'

함평 장모님댁 유품 정리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
사비로 병원 응급진료비·난방용 기름 등 지원 선행

이종선 목포해양경찰관 예방지도계장(60)과 아내 윤옥희씨(59)가 생명이 위태롭던 모녀를 극적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설 연휴 처가인 전남 함평을 찾았다.

지난해 별세한 장모의 빈집을 정리하고 마을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장모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에 적막감이 감도는 것을 느껴 들어가보니 그곳에서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채 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40대 어머니와 9세 딸을 발견했다.

40대 어머니의 배는 부푼 상태였고, 9살 딸은 야윈 모습이었다. 주거지 내부는 바깥 온도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냉골이었고 식사 흔적이나 음식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부부는 즉시 모녀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의 경우 극심한 영양실조로 폐와 간, 위 등 주요 장기가 크게 손상돼 배에 복수가 차 있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가 수액을 맞으며 치료를 받는 동안 부부는 아이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떡국을 먹였다.

부부는 사비로 진료비와 주거지 난방용 기름을 구매해 도왔다. 굶주린 어린 딸을 위해 간식도 구입했다. 면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려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또 부부는 모녀의 친척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이종선 목포해경 예방지도계장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계장의 요청을 받은 해당 관할 면사무소는 이들 모녀에게 생계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이종선 목포해양경찰관 예방지도계장(오른쪽)과 아내 윤옥희씨가 생명이 위태롭던 모녀를 극적으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빛고을노인건강타운

어르신 디지털 활용 '스마트폰 안전망' 구축 맞손

보이스피싱 예방·스마트폰 보안 점검 등 불안 해소 기대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과 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5일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과 디지털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통신 피해 예방과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 통신사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휴대전화 보호필름 무상 교체, 스마트폰 보안 점검 및 고객 안심패키지 무료 가입 등 디지털 안심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보안 상태 점검과 상담을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하명복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디지털 안심 활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디지털 활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안전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향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5일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과 디지털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한국에너지협회와 (사)한국재난안전교육연합회가 최근 에너지 안보와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너지협회-재난안전교육연합회 협약 체결

재난대응 에너지 인프라 등 안전 문화 '앞장'

(사)한국에너지협회와 (사)한국재난안전교육연합회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5일 한국에너지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은 단순한 '교류' 이상의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재난 대응 에너지 인프라 강화, 안전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안, 대국민 안전 캠페인 등을 펼친다.

한국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국 최대 광양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개관

K-POP 스튜디오·XR 스포츠 체험공간 등 놀이시설 마련

광양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조성을 완료하고 최근 개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 기존 수영장 공간(1053.29㎡)을 리모델링해 K-POP 스튜디오와 XR 스포츠 체험공간, 파티룸 등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개관식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청소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라야재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청소년댄스동아리 '카르페디엠'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공간 조성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 기대된다", "친구들과 함께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학부모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라야재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이 될 것이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는 광양YMCA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시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조성을 완료하고 최근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시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연 특별천문행사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은 행사 참가자들이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는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정월대보름 천문행사 성료

개기월식·목성 등 확인 천체투영관 특별해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특별천문행사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과 맞물려 지난 3일 진행된 이번 천문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1.2m 대형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망원경을 통해 붉게 변하는 달(레드문, Red Moon)이 되는 개기월식을 직접 관측했다. 천체투영관에서는 특별해설 프로그램 '우주에서 보는 월식'을 운영해 개기월식에 담긴 과학적 원리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월식은 오후 5시 44분(광주시 기준) 반영월식으로 시작해 밤 11시 23분에 종료됐다. 특히 개기 단계(오후 8시 4분부터 9시 2분까지)에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의 영향으로 달이 붉게 물드는 '레드문'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개기월식 최대 시각인 오후 7시 33분 무렵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별빛천문대에서 관측에 참여했다. 개기월식과 함께 목성, 플레이아데스 산개성단(좀생이별), 오리온 대성운 등 다양한 천체 관측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가족, 연인 등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전통 명절과 현대 천문학의 조화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백종원플라워농장 텃밭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순천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3곳 선정

모이라·가천산방·백종원플라워농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처음으로 시행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평가에서 '모이라(서면), 가천산방(서면), 백종원플라워농장(덕월동)' 등 3곳을 우수 치유농업 인증시설로 선정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2021년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치유농업이 제도권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치유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심사는 농촌 체험 활동과 구분되는 '치유' 기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시설 여건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운영기반, 전문인력 확보, 운영 체계의 체계성,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 검증 등 총 38개의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필수요건 검증과 정량 점수 평가를 함께 적용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만을 선별했다.

인증을 획득한 모이라농장, 농업회사법인 가천산방㈜, 백종원플라워농장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순천시 치유농장으로 육성됐으며 원예자원 등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본사방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